

광화문발 집단감염...방역당국 뒷북 대처로 골든타임 놓쳐

광주시 제보 받고도 처리 '미적'...경찰은 소극적 수사 일관 집회 참가자들 10일 넘도록 확보...합동대응팀 구성 등 필요

광주시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8·15광화문발 집단 감염 사태(광주일보 8월 27일자 1면)는 어설픈 행정이 부른 사실상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매주 오고가는 목사와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 참가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으로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로부터 수사협조를 요청받은 광주경찰도 수사 규정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 코로나19 대학살로 광주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광주시와 광주경찰의 구조체제는 엉망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광주시 등 방역당국과 경찰이 공동으로 코로나19업무를 진행하는 가정 '코로나19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담당 공무원은 지난 18일 한 시민으로부터 "광주지역 교회 목사와 신도 등이 전세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고 8·15 광화문집회에 참가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매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오고갔다"는 제보를 받았다. 당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때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담당 국장에 게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내용은 빼고

광화문 집회 관련 내용만 보고했다. 담당 국장은 "직원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제보내용까지 보고했으면 사안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더 빨리 조치했을텐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광화문 집회 제보 내용을 보고받은 담당 국장은 광주경찰에 관련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사규정상(시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광주시는 다음날인 19일 광화문집회 방문자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광화문 집회 인솔자(목사)에겐 '21일 오후 2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도 행정명령 마지막 날 해당 목사를 접촉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 111명의 명단을 받은 뒤 광주시에 전달했다.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데만 꼬박 4일을 소비한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이 절차를 밟은 사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10일 넘도록 광주와 전남을 돌아다녔고, 아직까지 29명은 소재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이 더디게 움직이는 사이, 결국 각화동의 한 교회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터졌다. 더 큰 문제는 추가 확산 우려도 높다는 점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경찰수사는 (광주시의)행정명령이 발동된 후 이를 따르지



멈춰 선 순찰차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경찰관이 2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지구대가 폐쇄된 가운데 순찰차들이 지구대 앞에 멈춰서 있다.



문닫은 탁구장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한 광주 북구 두암동 동광주탁구장 입구.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않는 경우 시작되며, 심각한 감염병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선 소재 확보를 요청하면 곧바로 해주고 있다"면서 "이번 광화문 집회 관련도 이 같은 절차를 따른 것이며, 광주시에서 상무지구 유희시설발 확진자 등 업무가 밀리다 보니 광화문 집회 관련자 대응이 늦어진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에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수사 규정을 따지는 바람에 수일의 시간을 소비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확진자 급증에 병상·의료인력 확보 '초비상'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확진자들은 광주, 전남, 전북에 확보한 173개 병상으로 분산 배치되고 있다. 전남대병원(7)·조선대병원(10)·화순전남대병원(4)·전북대병원(10)·원광대병원(3) 등 국가치료 병상이 34개다.

빛고를 전남대병원(89)·순천의료원(20)·강진의료원(20)·군산의료원(10) 등 전남 병원에 139개 병상이 있다.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들은 천안 생활치료센터(217)에도 이송된다.

지난 26일까지 입원자는 62명이었지만 교회, 탁구장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확진자만 54명이나 쏟아져 병상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상태 등을 고려해 확진자들을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빛고를 전남대병원, 강진의료원, 천안 생활 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남도, 전북도와 강진의료원과 군산의료원 병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활 치료센터로는 애초 검토한 나주 한전KPS 인제개발원보다는 여수 해양경찰 연수원에 100여 병상을 확보해 확진자를 이송한다. 의료 인력을 확보해 확진자를 이송한다. 의료 인력 부족 우려에 따라 중앙 방역 당국에서 의사 7명, 간호사 30명을 지원받기도 했다. 빛고를 전남대병원은 인력이 부족해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남에서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2곳이 현재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재 2개 병원 병상은 모두 167개로 88개가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79개다. 순천의료원 병상 89개 중 55곳이 사용 중이다. 78개 병상을 보유한 강진의료원은 33개 병상에 환자가 입원 중으로 잔여 병상은 45개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목포시립병원에 격리시설을 갖춘 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경증 환자를 따로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화문집회 광주·전남 참가자 제대로 못 찾았다

미확인·연락두절 참가자 다수 침례교회 중심 n차 감염 확산

보수단체 주최 광복절 광화문집회발(發) 코로나 19 집단 감염으로 광주가 속대밭이 됐지만 27일까지도 방역당국과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버스를 나눠 타고 서울 집회에 갔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정치권 및 시민 제보가 접수됐음에도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데다 집회 참가자 일부가 철저히 동선을 감추면서 광주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형국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확보한 명단 중 연락이 닿지 않는 29명에 대해선 광주경찰청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단내에 없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광주시

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 등을 통해 확보한 광주지역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총 222명이다. 222명 중 111명은 광화문 집회 광주 모집책임 A목사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것이다. 이 중 140명은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를 받지 않는 82명 중 36명은 소재를 파악한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7명은 검사거부의 사를 밝힌 상태다. 또 29명은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명단에 없는 사람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실제 북구 성림침례교회에 무더기 감염 사태를 일으킨 광주 284번 확진자도 광주시가 파악한 명단에는 없다. 조사 결과, 284번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5시 30분 무등경기장 건너편 버스승강장(임동 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한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다. 이 전세

버스는 광주 모집책임 A목사가 담당한 차량이다. A목사가 제출한 명단의 진위여부 의심받는 이유다.

종일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고 음식도 함께 나눠 먹은 만큼 전세버스 탑승객들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까지 진단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 친구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우리는)보건소에 가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는다"며 진단 검사 자체를 집단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최근 광주에서 급증하고 있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의 속도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남에서도 집회가 개최된 지 12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참가자 3명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누적검사 11만여건...자가격리자 하루 수천명씩 증가

검사 대상자 많아 속도 더뎠다. 광주에선 매일 평균 1000여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진 뒤부터는 매일 2000~3000여건씩 진행중이다. 이날 현재 누적 검사 건수는 11만 8300여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자가격리자도 크게 늘었다. 이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2000여명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2차 재확산 이전인 지난 12일 검사 건수는 330건(명)에 불과했다. 당시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올초부터 3만655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였다. 타지역에서 '정정 전남'으로 부를 정도였다. 확진자가 드문 드문 발생하다 보니 자가격리자가 0명인 날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6309건에 달한다. 자가격리자만 이날 오전 7시 기준 1128명에 달한다. 확진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일 검사 총량 및 자가격리자 현황 집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검체 양이 한계가 있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검체 상당수가 녹십자 등 민간검사기관에 맡기는 실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연해서만 7347명을 검사했다. 광주에선 매일 평균 1000여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진 뒤부터는 매일 2000~3000여건씩 진행중이다. 이날 현재 누적 검사 건수는 11만 8300여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자가격리자도 크게 늘었다. 이날 현재 역학조사

August 20,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 용도: 지식산업(특수공업)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실업대책사업
K-스타트업